

알렉산더 피터스(Alexander A. Pieters)의 『구약 개역』 개정 작업

— 『구약전서』(1930)와 『성경 개역』(1938)의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

이환진*

이 글은 지금 우리나라 개신 교회가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의 이전 판인 『성경 개역』(1938, 이하 『개역』)의 개정 작업을 알렉산더 피터스(Alexander A. Pieters, 彼得, 1871-1958)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번역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디 유대계 러시아인이었던 피터스는 1895년부터 조선의 한양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서 전도 책자를 팔던 권서였다.¹⁾ 그러면서 그는 우리말 최초로 『시편촬요』(1898)라는 구약 단행본을 번역하여 한글 시편 번역의 초석을 놓았다.²⁾ 이후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피터스는 한글 『구약』(1911)의 구약 번역의 독회에 번역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나 전념하지는 못했다.³⁾ 그러다가 1931년부터 『개역』의 구약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결국 1938년에 『개역』이 나오는데 이 성경의 번역 작업을 마무리한 선교사가 바로 피터스이다.

1900년대 전반기에 진행되었던 한글 『개역』의 구약 번역 작업은 3단계로 나뉜다. (1) 게일(J. S. Gale)의 서울 개역 시기(1911-1925년), (2) 베어드(W.

* New York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peninim@hotmail.com.

1)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 제1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534-537, 540-541.

2) Alexander A. Pieters, "First Translations", *Korea Mission Field* 34/5 (May 1938), 93;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 제1권, 560-577, 580-581, 588-589;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96-99; 이 번역에 대한 평가로는 이환진, "알렉산더 피터스의 『시편 촬요』 번역 평가", 김영일 외,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김이곤교수퇴임기념논문집 (서울: 한들, 2006), 413-453을 참조하라.

3)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II, 74-75.

M. Baird)의 평양 개역 시기(1926-1931년), (3) 피터스의 서울 개역 시기(1931-1937년)가 그것이다.⁴⁾ 게일의 시기는 번역 논쟁의 결과⁵⁾로 게일이 구약 개역자회를 탈퇴한 뒤 『게일-이원모역』(1925)⁶⁾을 펴낸 뒤로 끝이 난다. 베어드의 시기는 『개역』의 구약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던 베어드가 1931년에 사망하여 끝이 난다.⁷⁾ 하지만 베어드의 시기에는 1930년 당시까지 번역한 17권은 『기역』(개역)⁸⁾ 본문을, 나머지 책은 『구역』 본문을 사용하여 『구약전서』⁹⁾라는 이름으로 펴내기도 했다.¹⁰⁾ 그리고 피터스의 시기가 1931년에 시작된다.¹¹⁾ 1931년 당시 구약의 약 1/3이 개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피터스는 남아 있던 1/3의 개정 작업을 끝내고 베어드 팀이 이

4) Ibid., 120-160.

5) 게일(J. S. Gale)은 영국성서공회가 문장이 아름다운 『대표본』(Delegates' Version)을 중국에서 펴냈는데 그와 같은 번역이 한국에서는 왜 나올 수 없느냐고 말했다. 여기서 게일의 번역 철학을 알 수 있다. 옥성득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밀러 서신』 제3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258-261, 350-351을 보라. 1854년에 영국성서공회에서 펴낸 한문 성경 『대표본』은 아름다운 고전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역본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환진, “한문성경 『대표본』(代表本, 1854)의 번역 특징-전도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0 (2012), 25-44를 참조하라.

6) 이 역본의 본디 이름은 『新譯 新舊約全書』이다.

7) 옥성득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밀러 서신』 제3권, 384-385, 650-657, 662-663.

8)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스스기, 룻기, 삼우엘 상,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오바야, 요나, 학개, 말라기.

9) 『구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30).

10) 물론 1925년에 『창세기』(『기역』)가 성서 개역자회 역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 창세기 번역 문은 1930년에 나온 『관주 구약전서』의 창세기 번역문과 다르지 않고 아래 아(·)를 중심으로 한 철자만 약간 다르다.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한글 성서 전시회』 (서울: (재)대한성서공회, 2015), 33의 도록을 보라.

그리고 1926년에도 『鮮漢文 貫珠 聖經全書』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작업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집어넣어 『구역』 본문과 함께 나왔다. 韓國教會史文獻研究所 편, 『韓國聖經大全集 28』(선한문 관주 성경전서[상][1926]) (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所, 2002)을 보라. 그러나 이 책에 들어 있는 『기역』은 선한문으로 되어 있는 본문이다. 곧 ‘地가 混沌하고 空虛하고 黑暗이 汲흠우에 在하고’(창 1:2)라는 식으로 한자말로 바꿀 수 있는 낱말은 모두 바꾸어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게일 번역팀의 창세기가 『개역』의 이름으로 나온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선한문 개역 본문으로는 창세기가 『鮮漢文 創世記 改譯』(朝鮮 京城: 大英聖書公會, 1925)이라는 이름으로 최병헌 목사에 의해 처음 나오기도 했다. 韓國教會史文獻研究所 편, 『韓國聖經大全集 25』(종도행전[1922], 선한문 창세기[1925], 소년성경[1925]) (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所, 2002) 속의 “선한문 창세기”를 보라. 이 역본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환진, “탁사 최병헌 목사의 선한문 창세기 개역 (1925) 번역 평가: 창세기 1장의 경우”, 『신학과 세계』 82 (2015.03), 6-71을 참조하라.

11) 옥성득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밀러 서신』 제3권, 378-379, 388-389, 414-415, 428-431, 436-445, 450-459, 462-469, 474-491, 494-499, 510-519, 658-661, 666-669, 672-675, 690-693, 696-697, 704-705, 712-715. 특히 514-515쪽에 실린 밀러(Hugh Miller)의 서신에 있는 피터스(Alexander A. Pieters)의 1937년 4월 20일자 편지와 712-715쪽에 실려 있는 피터스의 1937년 9월 22일자 구약전서 개역자회의 보고서를 참조하라.

미 끝낸 2/3도 통일성을 위해 다시 개정 작업을 했다.

1911년부터 시작된 『개역』 개정 작업은 1938년에 끝나기까지 이렇게 여러 번역팀이 대를 물려가면서 완성하였다. 게일 시대와 베어드 시대를 거쳐 피터스 시대에 이르러 『개역』이 완성된 것은 『대한성서공회사』 1권과 2권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베어드 시대와 피터스 시대에 각각의 번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번역 본문을 직접 분석하여 다룬 연구는 별로 없었다. 본고를 통하여 그 실제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하여 한글 성경 『개역』의 개정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1930년에 출판된 『기역』과 1938년에 출판된 『개역』 사이에는 번역 원칙의 변화는 없다. 게일¹²⁾ 사임 이후에 베어드 주도로 이루어진 번역 원칙은 “히브리어 원전에 충실한 축자역”¹³⁾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개역 원칙을 바탕으로 개정 작업한 본문 중에서, 베어드가 주도하던 시기의 개정 작업 결과와 피터스가 주도하던 시기의 개정 작업 결과를 알려면 사실상 1930년에 합본되어 출판된 17권의 『기역』과 1938년에 최종 완료되어 출판된 『개역』을 모두 비교 검토해 보아야, 번역 책임자의 변화에 따른 번역 결과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편의 논문에서 이들 책을 다 다루어 비교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다만 창세기 1장의 개역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과 비교 분석하면서 피터스가 『개역』 개정 작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고 한다.¹⁴⁾ 따라서 이 글에서 비교 분석하려는 『개역』 본문은 베어드 팀이 작업하여 1930년에 나온 『구약전서』¹⁵⁾ 속의 창세기 1장과 피터스 팀이 작

12) 게일이 주도했던 시기의 개역 본문은 남아있지 않지만 “[한문성경] 대표본(Delegates' Version)이 번역된 원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당시 밀러의 평가를 받았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II, 136.

13) 1923년 개역위원 하디(R. A. Hardie)는 게일 사임 이후에 개역 원칙에 대하여, “히브리어나 영어 본문에 매달림으로써 한국어답지 못한 표현이 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가능한 한 축자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Ibid., 145.

14) 이환진, “알렉산더 피터스의 한글 개역 구약 개정 작업 — “구약 개정에 대한 노트”(1940년)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22 (2008), 48-72에서 필자는 피터스의 글을 중심으로 그의 『개역』 개정 작업을 살펴보았다.

15) 『구약전서』(경성: 대영성서공회, 1930). 『기역』 창세기 본문은 네 번에 걸쳐 인쇄된 듯하다. 앞서 언급한 1925년의 『창세기』 그리고 1930년의 『구약전서』와 『관주 구약전서』와 『성경전서』의 창세기 본문이다. ‘아래 아’를 중심으로 한 철자법만 약간 다를 뿐 번역에는 차이가 없다. 1930년 판본들에는 모두 『기역』 본문이 17권이 들어 있다. 특이하게도 1950년에 『성경전서』(1930)가 또 발행된다. 당시 독자들이 여전히 『기역』 본문이 들어있는 『구약전서』 본문을 선호한 듯하다. 전무용, 조지윤, “한글 성서의 번역”,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34, 54를 보라. 이 책 34쪽에는 『성경전서』(1930)의 도록이 있고 54쪽에는 이 성경에 대한 설명이 있다.

업하여¹⁶⁾ 1938년에 나온 『성경 개역』¹⁷⁾ 속의 창세기 1장이다. 아래 본문 분석에서 베어드 팀의 『기역』은 ‘1930년 판본’이라고 부르고 피터스 팀의 『개역』은 ‘1938년 판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번역문 인용은 각각 1930과 1938로 괄호 속에 표기한다. 그리고 두 판본이 서로 다른 부분은 밑줄을 그어 표시해 놓았다. 본고에서는 우선 창세기 1장만 살폈지만, 베어드 팀과 피터스 팀의 번역의 차이에 대한 전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논문을 바탕으로 추후 주제별 유형별로 전체의 번역의 차이와 특징을 연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창세기 1장 본문 비교와 분석

1.1. 창세기 1:1

(1930) 태초에 하나님이 던디를 창조하시다

(1938) 태초에 하나님이 던디를 창조하시니라

본 절에서 두 판본은 표기법이 약간 다를 뿐 번역의 차이는 없다. 두 판본의 차이점은 ‘하느님’(1930)과 ‘하나님’(1938), ‘창조하시다’(1930)와 ‘창조하시니라’(1938)이다. 1938년 판본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국 개신 교회는 지금까지 이 용어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하시다’(1930)와 ‘-하시니라’(1938)에서 아래 아(·) 표기의 변화는 의미에 그다지 차이가 없다.¹⁸⁾ 그러나 ‘-다’로 맺은 것과 ‘-니라’로 맺은 것 사이에는 의미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 ‘-하시다’는 회의록 기록 때 흔히 쓰는 문체로, 사실만을 기술하는 형식이고, ‘-하시니라’는 여기에 어미 ‘-니-’가 첨가되면서 ‘진행성’의 의미가 부가되어, 사실성에서 사건성으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사실 1930년 판본은 창세기 1장에서 종종 ‘-하시다’라는 어미를 사용한다. “궁을 하늘이라 하시다”(1:8)와 “새들도 싸에 번성하라 하시다”(1:22) 그리고 “모든 기는 심물을 주관하라 하시다”(1:28)가 그 경우이다. 문장 어미의 경우

16) 피터스가 개정한 원고를 바탕으로 레널즈(W. D. Reynolds), 이원모 3인이 독회를 통하여 최종 번역으로 결정하였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II, 156-160.

17) 『성경 개역』, 경성: 조선성서공회, 1938.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영인본)

18) 이 글에서 한글 어미의 변화에 대한 사항은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의 전무용 박사의 의견을 참조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전무용 박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1930년 판본은 이렇게 ‘-히시다’¹⁹⁾와 ‘-하시더라’(1:2) 또는 ‘-이러라’²⁰⁾나 ‘-지라’²¹⁾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나, 1938년 판본은 본 절처럼 ‘-니라’²²⁾나 4절처럼 ‘(도^하)더라’²³⁾로 통일시켜 번역한다.

1.2. 창세기 1:2

(1930) 싸이 혼돈히고 공히히야 흑암이 김흠 우에 잇고 하^느님의 신은 슈면에 운히히시더라

(1938) 싸이 혼돈하고 공히히며 흑암이 김흠 우에 잇고 하나^님의 신은 슈면에 운행히시니라

본 절의 경우도 1절과 마찬가지로 1938년 판본은 문장의 어미를 약간 바꾸었다. ‘공히히야’(1930)를 ‘공히히며’(1938)로, ‘운히히시더라’(1930)를 ‘운행히시니라’(1938)로 바꾸었다. ‘-더라’의 ‘-더-’는 보고자의 경험을 통하여 ‘인지된 사실’을 주관적으로 진술하는 형식이고, ‘-니라’에서 진행형이 표현되는 ‘-니’는 사건 자체를 ‘묘사적으로’ 곧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형식이다.

1.3. 창세기 1:3

(1930) 하^느님이 굴으샤디 빗치 잇스라 히시니 빗치 잇거늘

(1938) 하나^님이 갈아샤대 빗치 잇스라 하시매 빗치 잇섯고

본 절도 ‘히시니’(1930)를 ‘하시매’(1938)로, ‘잇거늘’(1930)을 ‘잇섯고’(1938)로 바꾼 것뿐 번역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니’는 연결 형식이고, ‘-매’는 명사화·사물화하는 ‘ㅁ’형식이 포함된 맺음 형식의 연결²⁴⁾이다. 전자는 인과적으로 이어진 것이고, 후자는 하나의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이것을 근거로 하여 다음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문체적 변화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이해에 차이

19) 1:1, 8, 22, 28.

20) 1:5, 8, 13, 19, 23, 31.

21) ‘-되지라’(1:7, 9, 11, 15, 24, 30), ‘선히지라’(1:10, 12, 18, 21, 25).

22) ‘-하시니라’(1:5, 8, 10, 18, 22, 28), ‘-이니라’(1:5, 8, 13, 19, 23, 31), ‘-(되)니라’(1:7, 9, 15, 24, 30).

23) 1:4, 10, 12, 18, 21, 25, 31. ‘-더라’는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종결 어미로, ‘목적, 회상, 보고’의 특징이 있는 성경의 문체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24) <홍길동전>에서 사용된 “길동이 점점 자라 팔세 되민”, “디장뷔 세상의 나민” 등에서와 같이, 상황을 묘사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이다. “홍길동전” (경판본, 정병욱 소장 24장본), 한국어문학회 편, 『고전소설선』 (서울: 형설출판사, 1984), 1-12 참조.

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문장 끝의 ‘잇거늘’(1930)이 ‘잇섯고’(1938)로 바뀌었다. ‘-거늘’은 까닭이나 원인을 나타내되 말하는 이의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고, ‘잇섯고’는 ‘있-었-고’ 형식의 표현으로 ‘-었-’을 통하여 과거 한 시점의 사건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앞의 ‘-거늘’은 주관성이 있는 표현이고 ‘-엇고’는 좀 더 객관적으로 사건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1.4. 창세기 1:4

(1930) 하느님이 빛을 보시니 선흔지라 빛과 어두움을 난호샤

(1938)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도왔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난호샤

1930년 판본은 히브리어를 그냥 평범하게 번역한다. 그런데 1938년 판본은 ‘빛’을 강조하여 번역했다. 1930년 판본과 달리 문장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빛’에 있다. 그래서 그 ‘빛이’(‘빛이’)라는 말을 앞으로 끄집어내어 읽었다. 이 부분에서 히브리어로 목적어인 ‘빛’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히브리어로 문장 구조가 거의 똑같은 1:31(“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도왔더라”)과 비교해 보면 1:4가 ‘빛’을 강조하여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938년 판본의 ‘하나님의 보시기에’에서 사용된 조사 ‘의’는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작용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²⁵⁾로 정당하게 사용된 것이지만, 현대적인 문체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선흔지라’(1930)를 ‘도왔더라’(1938)로 바꾸어 번역한 것은 좋은 번역으로 보인다. 사실 1930년 판본의 ‘빛이 선하다’는 어색하다. ‘선’이라는 말이 윤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피터스 팀은 이 점을 간과하고 윤리적인 성격이 배제된 ‘도왔더라’(‘좋았더라’)라는 말로 번역한 듯하다.

1938년 판본은 ‘빛과 어두움을 난호샤’ 앞에 1930년 판본에는 없는 ‘하나님’을 집어넣어 번역한다. 될 수 있는 한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한 흔적이다. 물론 1930년 판본은 ‘빛과 어두움을 난호샤’라고 문장 끝을 준대법 ‘-샤’로 처리하여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알게 했다. 따라서 1930년 판본은 문장이 간결하다.

25) 국립국어원, “의 10”에 대한 설명 2번,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8. 9. 5.)

1.5. 창세기 1:5

- (1930) 빛출 낮이라 흐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흐시다 저녁이 되며 아침²⁶⁾
이 되니 첫재날이러라
(1938) 빛출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재 날이니라

두 판본은 문장이 거의 같지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하나는 1930년 판본의 ‘흐시고’나 ‘흐시다’를 1938년 판본은 각각 ‘칭하시고’와 ‘칭하시니라’로 바꾸어 번역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는 첫재 날이니라’에서 ‘이는’을 집어넣어 번역한 것이다.

1930년 판본이 ‘흐시고’와 ‘흐시다’로 번역하고 1938년 판본이 ‘칭하시고’와 ‘칭하시니라’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는 ‘카라(כָּרָא)’이다. ‘(누구를) 부르다’(HALOT, 1128)라는 일차적인 뜻이 있는 이 동사를 1930년 판본은 그냥 ‘하다’(하다)로 번역했다. 우리말 표현에서 ‘누구를 누구라고 하다’라는 말은 ‘누구를 누구라고 부르다’와 같은 뜻이다. 1925년에 나온 『게일-이원모역』도 1930년 판본과 똑같이 번역했다. 그런데도 1938년 판본은 이 번역어를 ‘칭하다’로 바꾸었다.

1930년 판본은 1:5 마지막에서 그냥 ‘첫재날이러라’로만 되어 있다.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번역한 경우이다.²⁷⁾ 1938년 판본의 1:5에 나오는 ‘이는 첫재 날이니라’에서 ‘이는’은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말이다. 이렇게 첨가한 경우는 창조의 각 날을 가리키는 곳마다 반복되어 등장한다.²⁸⁾ ‘-러라’가 말하는 이의 경험을 전하는 주관적인 형식인데 비해서, ‘-니라’는 ‘-니-’를 통해서 진행성·묘사성이 강화된 객관적인 표현 형식이다.

1.6. 창세기 1:6

- (1930) 하늘님이 골으샤디 물 가운데 궁창이 잇서 물을 물에서 눈호이

26) 『창세기』(『기역』)는 날권으로 1925년도에 성서 개역자회의 번역으로 나온다.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33을 보라. 이 도록을 보면 1925년 창세기(『기역』)와 1930년 창세기(『기역』)의 본문 번역 차이는 없다. 다만 가끔 철자의 차이가 보인다. 위 1930년 창세기(『기역』)의 ‘아침’이 1925년 창세기(『기역』)는 ‘아침’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가 1938년 판본에서는 ‘아침’으로 바뀌는데 이 당시 아래 아(·)의 표기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7) 물론 ‘첫재 날’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욘 에하드(יּוֹם אֶחָד)’는 ‘하루’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TNK의 난하주 c에 나오는 ‘one day’를 보라. 물론 1925년에 나온 『게일-이원모역』처럼 ‘第一日’(제일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28) 1:8, 13, 19, 23, 31.

계 흐리라 흐시고

(1938) 하나님이 갈아샤대 물가온대 궁창이 잇서 물과 물노 난호이게
하리라 하시고

이 절에서 두 판본의 차이점은 철자법을 빼고 ‘물을 물에서’(1930)와 ‘물과 물노’(1938)이다. 물론 두 판본은 똑같이 ‘난호이게 흐리라’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히브리어 본문²⁹⁾으로 읽어 보면 두 판본 다 가능해 보인다. 『공동』(1977)과 『새번역』(2004)은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1930년 판본이나 1938년 판본이 히브리어 동사 구문 ‘비히 마브딜(וִּיהִי מַבְדִּיל)’을 직역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터스는 이 히브리어 동사 3인칭 기원형을 번역하는 문제가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³⁰⁾ 그래서 ‘물을 물에서 난호이게 흐리라’를 ‘물과 물노 난호이게 하리라’로 바꾸었다. 곧 히브리어 동사 3인칭 기원형을 ‘… 하게 하다’로 번역하자는 그의 번역 지침대로 ‘(궁창이 잇서) … 난호이게 하리라’로 처리했다. ‘궁창으로 하여금 … 나뉘게 하리라’로 히브리어 본문을 읽은 듯하다. 피터스는 이 경우 ‘… 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한글 번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의 지침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물을 물에서’(1930)를 ‘물과 물노’(1938)로 바꾸어 그 부자연스러운 점을 메꾸려고 시도한 듯하다. 하지만 어색한 한국어 표현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히브리어 동사 3인칭 기원형의 어색한 번역은 1:14에서도 또 찾아볼 수 있다.

1.7. 창세기 1:7

(1930)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샤 그 우 아래 물을 난호시니 그대로 된지라

(1938)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노 난호
이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우선 1930년 판본은 ‘그 우 아래 물’이라고 간결하게 번역했다. 1938년 판본은 히브리어 본문의 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번역했다. 1930년 판본은 히브리어의 각 요소를 희생했지만 간결하게 그 뜻을 전달한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래 위’이지만 한국어의 관용적 표현에 따라 ‘우 아래’라고 번역했다.

29) וִּיהִי מַבְדִּיל בֵּין מַיִם לַמַּיִם

30) Alexander A.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The Korean Mission Field* 36/5 (May 1940), 78-79.

그 다음 ‘느호시니’(1930)와 ‘난호이게 하시매’(1938)는 히브리어 동사 ‘야브델(לְבַדַּל)’의 주어를 ‘하느님’(하나님)으로 이해하여 번역한 것이다.³¹⁾ 그런데 사실 이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궁창’일 수도 있다.³²⁾ 1938년 판본은 어색한 표현인데 앞 6절의 ‘물과 물노 난호이게 하리라’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1930년 판본의 ‘느호시니’가 더 자연스럽다.

여기서는 ‘되-지-지라’(1930)가 ‘되-니라’(1938)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인지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지-’ 형식으로 표현했던 것을 ‘-니-’를 써서 묘사적으로 곧 객관적인 표현으로 개정하였다.

1.8. 창세기 1:8

(1930) 하느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흐시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
재날이러라

(193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재 날이니라

앞 5절과 똑같이 ‘흐시다’(1930)를 ‘칭하시니라’(1938)로 바꾸어 번역했다. 여기서도 ‘흐시-다’(1930)와 ‘하시-니라’(1938)의 어미변화가 보인다. 전자가 ‘사실’을 나타내는 형식인데 비해서, 후자는 진행성이 부여된 ‘사건’ 표현 형식이다. 또한 1938년 판본은 ‘이는 둘재 날이니라’라고 하여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이는’이라는 말을 첨가하였다.

1.9. 창세기 1:9

(1930) 하느님이 골으샤드 턴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히고 므른 흙이 드
러나라 흐시니 그대로 된지라

(1938) 하나님이 갈아샤대 턴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히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우선 두 판본에서 번역어가 다른 것은 ‘므른 흙’(1930)과 ‘뭇’(1938)이다. 히브리어 ‘야바샤(בִּשְׁבָּע)’를 옮긴 말이다. 이 용어의 일차적인 뜻은 ‘마른

31) 1930년 판본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의 위와 아래 물을 나누셨다’라고 이해하여 번역했다. 1938년 판본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의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게 하셨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32) ‘하나님’을 주어로 번역한 것으로는 불가타역, 칠십인역, BFC, DGN, Fox, KJV, Koren, von Rad 등이 있으며 ‘궁창’을 주어로 번역한 것으로는 Alter, TNK, Speiser 등이 있다.

땅’(HALOT, 384-385)으로 두 번역어 모두 가능하다. 단 1930년 판본의 ‘므른 흠’(마른 흠)은 문자적인 뜻을 그대로 옮겨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다. 그런데 1938년 판본의 ‘뭇’(물)은 토박이말로, 좋은 번역어이지만 발음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실제로 1938년 판본은 같은 히브리어를 출애굽기 4:9에서는 ‘육디’(육지)로, 이사야 44:3에서는 ‘마른 쟈’(마른 땅)로 달리 번역하기도 했다.³³⁾

문제는 두 판본이 똑같이 번역한 ‘모히고 … 드러나라’이다. 피터스가 한국어로 옮기기 어려워 한 히브리어 동사 3인칭 기원형이다. ‘모히고’는 ‘이카브(יִקַּב)’³⁴⁾를 번역한 말이고 ‘드러나라’는 ‘테라에(תִּרְאֶה)’³⁵⁾를 번역한 말이다. 따라서 이 두 동사를 피터스의 견해³⁶⁾에 따라서 번역하자면 각각 ‘물은 모히게 하라’와 ‘마른 땅은 드러나게 하라’가 될 것이다.³⁷⁾ 그런데도 ‘모히고 … 드러나라’로 번역했다. 곧 ‘(물은) 모히라 … (마른 땅은) 드러나라’로 3인칭 기원형을 2인칭 명령형으로 바꾸어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번역했다. 물과 마른 땅에 명령을 내리듯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두 판본은 일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앞 1:6에서 ‘… 하게 하라’의 형식으로 번역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1938년 판본은 앞 1:7과 마찬가지로 ‘-지라’를 ‘-니라’로 바꾸어 객관성·묘사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1.10. 창세기 1:10

(1930) 하늘이 므른 흠을 쟈이라 흐시며 모힌 물을 바다라 흐시고 하느님이 보시니 선희지라

(1938) 하나님은 뭇을 쟈이라 칭하시고 모힌물을 바다로 칭하시니라 하느님의 보시기에 도왔더라

앞 1:5처럼 ‘흐다’(1930)를 ‘칭하다’(1938)로 번역어를 바꾸어 개정한 예이다.

33) 『구역』도 비슷하게 출 4:9에서는 ‘육디’로, 사 44:3에서는 ‘매므른 쟈’로 번역했다.

34) HALOT, 1082. 이 동사(yiqqāvû)는 ‘카바(קַבַּ)의 니팔(nifal)형 익톨(yiqtol) 3인칭 남성 복수이다.

35) HALOT, 1160. 이 동사(tērā’eh)는 ‘라아(רָא)의 니팔(nifal)형 익톨(yiqtol) 3인칭 여성 단수이다.

36) Alexander A.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78-79.

37) 물론 TNK처럼 ‘하늘 아래의 물이 모이게 하여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라’(Let the water below the sky be gathered in one area, that the dry land may appear)의 한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1.11. 창세기 1:11

(1930) 하나님이 골으샤디 싸는 풀과 씨 밋는 칩 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잇는 과목을 그 우에 내라 히시니 그대로 된지라

(1938) 하나님이 갈아샤대 싸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씨 잇는 과목’(1930)이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1938)으로 바뀐 것이다. 사실 이 번역어의 히브리어 표현은 좀 복잡하다. ‘에츠 프리 오셰 프리 ... 아쉐르 자르오 보(אֶשֶׁר זָרְעוּ-בוּ ... פְּרִי עֵשָׂה פְּרִי עֵץ)’로 직역하자면 ‘씨가 있는 과일을 맺는 과일 나무’이다. 따라서 1938년 판본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보다는 1930년 판본의 ‘씨 잇는 과목’이 더 간결한 표현으로 보인다. ‘과목’이라는 말 자체가 ‘과일을 맺는 나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38년 판본은 여기서 ‘열매 맺는 과목’이라고 하여 ‘열매 맺는’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이중 번역을 했다. 물론 히브리어 표현을 문자적으로 다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하지만 어색한 우리말 표현인 것은 분명하다.

본 절의 주요 문장 구조는 ‘타드쉐 하아레츠(תְּדַשָּׂא הָאָרֶץ)’이다. 두 판본은 이 표현을 ‘싸는 ... 내라’로 번역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땅으로 하여금 ... 돌아나게 하라’³⁸⁾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 판본 모두 2인칭 명령형으로 번역했다. 물론 1930년 판본을 따른 듯하다. 하지만 1938년 판본은 여기서도 앞 1:9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동사 3인칭 기원형을 번역하는데 일관성을 잃었다.

또한 1938년 판본은 여기서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땅 위에’(עַל-הָאָרֶץ)를 번역하지 않았다. 그런데 1930년 판본은 ‘그 우에’(그 위에)로 이 히브리어 요소를 반영했다. ‘땅’을 ‘그’로 바꾸어 번역한 것은 앞에 ‘싸’(땅)라는 주어 가 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1:7의 ‘그(궁창) 우 아래 물’과 같은 경우로 보인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1930년 판본이 ‘그대로 된지라’로 끝나는 반면 1938년 판본은 ‘그대로 되어’라고 다음 절과 이어지게 번역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1930년 판본에 비해 문장이 무척 길다.

1.12. 창세기 1:12

(1930) 싸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밋는 최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잇는

38) TNK의 “Let the earth sprout vegetation”을 참조하라.

과목을 내거늘 하느님이 보시니 선히지라

(1938) 사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도왔더라

두 판본의 번역의 차이점은 문장 어미가 ‘내거늘’(1930)이 ‘내니’(1938)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1:10처럼 ‘하느님이 보시니 선히지라’(1930)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도왔더라’(1938)로 바뀐 것이다.

1.13. 창세기 1:13

(1930)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날이러라

(1938)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930년 판본과 비교해 보면 1938년 판본은 히브리어에 없는 ‘이는’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 번역했다.

1.14. 창세기 1:14

(1930) 하느님이 골으샤되 궁창에 빛들이 잇서 쥬야를 눈호고 징조가 되며 스시와 일즈와 년한을 덩호고

(1938) 하나님이 갈아샤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잇서 쥬야를 난호게 하라 또 그 광명으러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년한이 일우라

우선 ‘빛들’(1930)이 ‘광명’(1938)으로 바뀐 것이 눈에 띈다. 히브리어 ‘메오로트(מְאוֹרוֹת)’를 1930년 판본은 어색한 표현으로 만들어 번역했다. ‘빛’(빛)의 경우 복수 접미사 ‘들’을 붙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938년 판본의 ‘광명’이 더 나은 번역어로 보인다.³⁹⁾ 그 다음 ‘궁창’(1930)은 ‘하날의’를 첨가하여 ‘하날의 궁창’(1938)으로 바꾼 것인데 히브리어 요소를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다.

1930년 판본에서 ‘빛들’(빛들)을 주어로 하는 일련의 동사가 ‘잇서 … 눈호고 … 되며 … 덩호고’로 이어진다. 문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절 1:15에서 ‘(그 빛들이) … 싸에 빛최라’로 끝나는 것을 보면 이 일련의 동사는 ‘(빛들이) 있으라 … 나누라 … 되라 … 정하라 … 빛최라’로 읽을 수 있다. 곧 1930년 판본은 히브리어 3인칭 기원형을 1:9처럼 여기서도 2인칭 명

39) 참고로 『게일-이원모역』(1925)은 ‘빛초이는 불’(비추는 불)로 『공동』(1977)과 『새번역』(2004)은 ‘빛나는 것들’로 번역하기도 했다.

령으로 번역했다. 이와 달리 1938년 판본은 1:14-15의 하나님의 명령이 1930년 판본에서 너무 길다고 생각하여 두 문장으로 끊어서 번역했다. 앞 부분은 ‘광명이 잇서 쥬야를 난호게 하라’⁴⁰⁾이다. 여기서 히브리어 ‘레하브딜(להבדיל)’을 ‘난호게 하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잇서’로 번역한 히브리어 ‘예히(יהי)’와 함께 동사 3인칭 기원형으로 이해하여 ‘... 하게 하다’체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뒷 문장은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년한이 일우라’⁴¹⁾이다. ‘그 광명으로 하여... 일우라’가 이 문장의 뼈대인데 ‘...으로 하여금...하라’의 구조로 보인다. 여기서 ‘일우라’(이루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베-하유(והיו)’이다. 1930년 판본은 이 동사를 ‘(징조가) 되며 (스시와 일즈와 년한을) 덩흐고’로, 곧 ‘되며... 덩흐고’로 두 번 번역했다. 이것이 불편했던지 1938년 판본은 그냥 ‘일우라’로 한 번만 번역했다. 그리고 이 뒷 문장에서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그 광명’을 집어넣어 ‘베-하유’의 주어가 ‘광명’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1930년 판본처럼 일련의 동사를 사용하여 2인칭 명령으로 일관되게 번역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1938년 판본은 앞 문장에서는 ‘난호게 하라’로 뒷 문장에서는 ‘(그 광명으로 하여) ... 일우라’로 옮겨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일관성이 있으려면 ‘... 일우게 하라’로 번역했어야 했다. ‘년한이 일-우-라’처럼 사동 형식으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⁴²⁾

1.15. 창세기 1:15

(1930) 그 빛들이 하늘에서 짜에 빗최라 흐시니 그대로 된지라

(1938) 또 그 광명이 하날의 궁창에 잇서 짜에 빗최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930년 판본은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궁창’은 빼고 단지 ‘하늘에서’라고 번역한다. 그래서 1938년 판본은 ‘하날의 궁창에 잇서’⁴³⁾라고 번역하는데 이렇게 ‘잇서’를 뒤에 붙여 번역한다. 히브리어 ‘베-하유(והיו)’를 반영한 것

40) יהי מארת ברקיע השמים להבדיל בין היום ובין הלילה

41) והיו לאתת ולמועדים ול'מים ושנים

42) “년한이 일우라”라는 명령형은 우리말 어법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환진, “탁사 최병헌 목사의 선한문 창세기 개역 (1925) 번역 평가: 창세기 1장의 경우”, 6-71; 이환진, “알렉산더 피터스의 한글 개역 구약 개정 작업 — “구약 개정에 대한 노트”(1940년)를 중심으로 —”, 48-72, 특히 이 논문 각주 14) 참조. 이러한 문제는 『개역개정』(1998)에서 “해를 이루게 하라”로 개정하면서 해결된다.

43) והיו למאורת ברקיע השמים

으로 보인다.

1938년 판본은 1:24와 똑같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대로 되니라’를 괄호 속에 집어넣었다.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괄호로는 가장 흔한 것이 본 절처럼 손톱 묶음(())이고 때로 꺾쇠 묶음([])과 굵은 묶음(【】)이 쓰인다.⁴⁴⁾ 묶음이라고 부르는 이 괄호는 주석(gloss)을 하거나 새로운 내용(new material)을 집어넣고자 할 때 또는 잘못 놓여진 자료(misplaced material)를 나타내려고 고안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⁵⁾ 그런데 본 절의 괄호는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지 않아 사실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다. ‘그대로 되니라’는 창세기 1장에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와 1:24에서만 괄호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사에 빗죄라’(땅에 비추라)라는 표현이다. 두 판본이 똑같은데 특히 ‘사에’(땅에)는 히브리어 ‘알 하아레츠(עַל-הָאָרֶץ)’를 직역한 것이지만 우리말 표현이 어색하다. ‘땅을 비추라’로 번역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1.16. 창세기 1:16

(1930) 하늘님이 두 큰 빛을 문드샤 그 중에 큰자는 낮을 주관하게 호고
적은자는 밤을 주관하게 호며 또 별들을 문드샤

(1938) 하나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샤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
고 적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본 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큰자’(1930)가 ‘큰 광명’(1938)으로 ‘적은자’(1930)는 ‘적은 광명’(1938)으로 바뀐 것이다. 1930년 판본은 앞에서 ‘빛’이라고 번역하여 뒤에서는 그냥 ‘자’(자)로 바꾸어 ‘큰자’와 ‘적은자’로 번역했다. 1938년 판본은 두 표현을 모두 히브리어 그대로 ‘큰 광명’과 ‘적은 광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1930년 판본은 ‘큰자’ 앞에 ‘그 중에’를 작은 글자로 처리했다. 히브리어 본문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문에 작은 글자로 처리한 모습은 1938년 판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문장 마지막의 ‘만드시고’이다. 이 경우는 히브리어 본문에 없지만 그 뜻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어넣고 작은 글자로 처리한 것이다.⁴⁶⁾ 이 부분에서 1930년 판본 또한 원문에 없는 ‘문드샤’를 집어넣어 번역했으나 앞의 ‘그 중에’와는 달리 작은 글자로 처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1938년 판본

44) 閔泳珍, 『國譯聖書研究』(서울: 성광문화사, 1984), 81.

45) Ibid., 94-102.

46) Ibid., 75-76.

은 이전 번역보다 훨씬 더 엄밀하게 원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1.17. 창세기 1:17

(1930) 궁창에 두어 짜에 빛최여

(1938)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짜에 빛최게 하시며

여기서 1938년 판본의 앞부분인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는 1930년 판본이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원문의 모든 요소를 다 번역에 반영하고자 한 1938년 판본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빛최여’(1930)도 ‘빛최게 하시며’(1938)로 바꾸었는데 이 또한 히브리어 동사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38년 판본은 앞 1:15와의 통일성을 잃었다. 같은 표현 ‘레하이르(לְהַאִיר)’를 1:15에서는 ‘빛최라’로 옮기고 여기서는 ‘빛최게 하시며’로 하였기 때문이다.

1.18. 창세기 1:18

(1930) 주야를 주관하야 빛과 어두움을 난호게 하시고 하느님이 보시니
선흔지라

(1938)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난호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도왔더라

여기서 1930년 판본은 앞 1:17과 함께 이 부분에서 이어지는 동사를 ‘빛최여 … 주관하야 … 난호게 하시고’로 번역하였다. 곧 앞 두 동사는 그냥 두고 마지막 동사만 ‘난호게 하시고’로 사역형으로 번역하였다. 가운데 동사(‘주관하야’)가 히브리어로 사역형 동사가 아님에도 맨 앞 동사와 마지막 동사가 사역형 동사이기 때문에 매끄러운 번역이 되도록 이렇게 번역한 듯하다. 하지만 1938년 판본은 ‘빛최게 하시고 … 주관하게 하시며 … 난호게 하시니라’로 모두 ‘…하게 하다’체로 통일시켜 옮겼다. 번역문에서 통일성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사역형 동사가 아닌 가운데 동사 ‘마살(מָשַׁל)’을 ‘주관하게 하시며’로 사역형으로 번역하는 우를 범했다. 또한 1938년 판본의 ‘난호게 하시니라’는 앞 1:6에도 나오는 히브리어 ‘하브딜(הַבְדִּיל)’ 동사를 번역한 말이다. 앞 1:6에서는 ‘난호이게 하다’로 번역하고 여기서는 ‘난호게 하다’로 철자를 달리하여 번역하였다. 물론 이 번역어는 1930년 판본을 그대로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 통일성을 잃은 번역어이다.

1.19. 창세기 1:19

(1930)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넷째날이러라
 (1938)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1938년 판본은 1:5, 8, 13, 23, 31처럼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이는’이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여기서도 ‘-러라’(1930)와 ‘-니라’(1938)의 어미변화가 보인다.

1.20. 창세기 1:20

(1930) 하나님이 골으샤디 물에 심물이 번성하며 싸 우 공중에 새가 늘게 히리라 히시고
 (1938) 하나님이 갈아샤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싸 우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나 히시고

1930년 판본의 ‘번성하며 … 늘게 히리라’의 주어는 ‘하느님’인 듯하다.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지 않지만 앞 뒤 동사를 일관되게 번역했다. 그런데 1938년 판본의 경우 앞의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는 주어가 ‘물들’이고 뒤의 ‘새가 날나’는 주어가 ‘새’이다. 이렇게 주어는 히브리어 본문을 잘 반영했다. 하지만 히브리어 동사 3인칭 기원형을 앞에서는 ‘번성케 하라’로 직역하고 뒤에서는 ‘새가 날나’로 2인칭 명령형으로 달리 번역하여 일관성이 떨어진다.

또 1930년 판본의 ‘공중에’를 1938년 판본은 ‘하늘의 궁창에는’으로 바꾸어 번역했다. 곧 히브리어 표현 ‘프네이 레키아 하샤마임(פְּנֵי הַקַּיִץ הַשָּׁמַיִם)’을 번역한 것인데 1930년 판본은 앞에서 ‘하늘’을 생략하고 ‘궁창’으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프네이’가 ‘레키아’ 앞에 붙어 있어 구분하기 위하여 ‘공중에’로 번역한 듯하다. 하지만 1938년 판본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하늘의 궁창’으로 앞에서 똑같이 일관되게 번역했다.

1.21. 창세기 1:21

(1930) 하나님이 큰 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심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늘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느님이 보시니 선히지라
 (1938)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잇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도왔더라

본 절은 번역어가 바뀐 경우이다. ‘큰 고기’(1930)는 ‘큰 물고기’(1938)로, ‘물에서 번성하는 짐승’(1930)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1938)로 바뀌었다. 또한 ‘모든 날개 잇는 새’(1930)도 ‘날개 잇는 모든 새’(1938)로 바뀌었다. 본 절의 경우 1938년 판본의 번역어는 모두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번역어이다. 다만 ‘큰 물고기’(1938)는 ‘큰 고기’(1930)와 함께 히브리어 ‘타니님(תַּנִּינִים)’을 번역한 것인데 정확한 번역어라 말할 수 없다. 다만 KJV와 <루터역>이 ‘큰 고래’(great whales, grosse Walfische)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들 번역본을 비슷하게 따른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

1.22. 창세기 1:22

(1930) 하나님이 복을 주어 골앗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다에 충만하며 새들도 씨에 번성하라 하시다

(1938) 하나님이 그들의게 복을 주어 갈앗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씨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1938년 판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게’를 첨가한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오탐(אֹתָם)’을 번역문에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 바다 물’은 ‘여러 바다에 있는 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마임 바야밈(הַמַּיִם בַּיָּם)’을 문자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한 번역이다. 물론 1930년 판본의 ‘바다’는 이 히브리어 표현을 알고 있었겠지만 약간 복잡한 이 표현을 간결하게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시다’(1930)와 ‘-시니라’(1938)의 어미변화가 보인다.

1.23. 창세기 1:23

(1930)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섯째날이 러라

(1938)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 니라

1938년 판본은 여기에서도 1:5, 8, 13, 19, 31과 같이 ‘이는’이라는 말을 ‘...째날’ 앞에 집어넣어 번역했다. 여기서도 ‘-러라’(1930)와 ‘-니라’(1938)의 어미변화가 보인다.

1.24. 창세기 1:24

(1930) 하느님이 골으샤디 싸는 생물 곳 륙축과 기는 곤충과 들 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내라 흐시니 그대로 된지라

(1938) 하나님이 갈아샤대 싸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륙축과 기는
것과 싸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938년 판본은 히브리어 본문의 어순을 번역문에 그대로 살려 보려고 노력했다. 특히 반복되는 ‘그 종류대로’를 그대로 번역했다. 물론 뒤에서는 ‘그’를 빼고 번역하여 일관성을 잃기도 했다. 이에 비해 1930년 판본은 ‘싱물’ 다음에 ‘곳’(곧)을 집어넣어 간결하게 처리하고 ‘각기 종류대로’도 한번만 번역했다. 그런데 앞 절에서는 계속해서 ‘그 종류대로’라고 번역한 것을 ‘각기 종류대로’로 번역하여 통일성을 잃기도 했다.

번역어가 다른 것은 ‘기는 곤충’(1930)과 ‘기는 것’(1938) 그리고 ‘들 짐승’(1930)과 ‘싸의 짐승’(1938)이다. 앞은 ‘레메쓰(רמש)’를 번역한 것이고 뒤는 ‘하예토 에레츠(חיתו-ארץ)’이다. 사실 ‘레메쓰’의 일차적인 뜻이 ‘기는 것’(HALOT, 1246)이기에 1930년 판본의 ‘기는 곤충’이라는 번역어는 너무 구체적이다. 따라서 1938년 판본의 ‘기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번역어로 적절해 보인다.⁴⁷⁾ 그 다음 1938년 판본의 ‘싸의 짐승’은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듯한데 오히려 『구역』을 따른 1930년 판본의 ‘들 짐승’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보인다.

1938년 판본의 본 절의 문장 구조는 ‘싸는 … 내대 …내라’로 되어 있다. 앞 1:9나 1:11처럼 히브리어 동사 3인칭 기원형을 2인칭 명령형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대로 되니라’를 1:15처럼 괄호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여기서도 ‘-지라’(1930)와 ‘-니라’(1938)의 어미변화가 보인다.

1.25. 창세기 1:25

(1930) 각기 종류대로 들 짐승과 륙축과 모든 기는 곤충을 만드시고 하
느님이 보시니 선히지라

(1938) 하나님이 싸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륙축을 그 종류대로 싸에 기
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도왔더라

47) KJV의 ‘creeping thing’을 참조하라. 하지만 <루터역>은 ‘벌레’(Gewürm)로 번역하기도 했다. 『구역』과 『게일-이원모역』은 ‘곤충’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본 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1938년 판본이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맨 앞에 집어넣은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의 각 요소를 번역 속에 다 반영하려는 의도를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30년 판본은 ‘문드시고’의 ‘-시-’라는 어미를 통하여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점을 드러내면서 간결성을 추구한다.

1.26. 창세기 1:26

(1930) 하나님이 골으샤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름을 문드러 물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륙축과 온 새와 새에 모든 그는 곤충을 쥬관하게 하자 히시고

(1938) 하나님이 갈아샤대 우리의 형상을 사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륙축과 온 새와 새에 그는 모든 것을 다사리게 하자 히시고

본 절에서 1938년 판본은 ‘우리의 형상대로’(1930)를 ‘우리의 형상을 사라 우리의 모양대로’(1938)로 바꾸었다. 1930년 판본은 히브리어 원문의 ‘베찰메누 키드무테누(כַּדְמוּתֵנוּ בְּצַלְמֵנוּ)’에서 ‘베찰메누(בְּצַלְמֵנוּ)’만 번역했다. 아마도 1:27의 ‘즈기 형상대로’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그렇게 한 듯하다. 하지만 1938년 판본은 히브리어 본문의 두 용어를 모두 반영하여 번역했다. 또한 1938년 판본은 1930년 판본의 ‘물의 (고기)’를 ‘바다의 (고기)’로 바꾸었는데 히브리어 ‘얌(ים)’의 번역어로 잘 고쳐 번역했다. 1:28에서도 똑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두 판본에 모두 나오는 ‘공중의 새’는 뒤 1:28에도 나오는 표현이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앞 1:20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나’라는 문장에 나온다. 같은 히브리어 ‘샤마임(שָׁמַיִם)’을 앞에서는 ‘하날’(하늘)이라고 번역하고 여기서는 ‘공중’(공중)이라고 번역한다. 『구약』(1911)도 KJV도 모두 ‘공중’(air)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들 번역어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 ‘하늘의 새’라고 번역해도 여기서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1938년 판본은 앞에서 계속해서 사용한 ‘쥬관하다’라는 말을 ‘다사리다’로 바꾸었다. 그런데 1930년 판본은 앞 1:16에서 사용한 ‘쥬관하다’라는 말을 여기서도 사용한다. 분명히 다른 히브리어이다. 앞 1:16의 ‘쥬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멤셀레트(מַמְשֵׁלֶת)’를 번역한 것이고 여기 1:26의 ‘다사리다’는 ‘라다(*רָדָה)’를 번역한 것이다. 1938년 판본은 다른 히브리어 동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달리 번역한 듯하다.

1.27. 창세기 1:27

(1930) 하나님이 즈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일남일녀를 창조하시고

(1938)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 남자와 녀자를 창조하시고

1930년 판본은 여기서도 앞 1:26처럼 히브리어 본문의 ‘브찰모 브첼렘 엘로힘(בְּצַלְמוֹ בְּצֶלֶם אֱלֹהִים)’ 가운데에서 ‘브찰모(בְּצַלְמוֹ)’만 ‘즈기 형상대로’로 번역했다. 하지만 1938년 판본은 두 표현을 모두 번역하여 ‘곳’으로 연결하였다. 특이한 점은 1930년 판본의 ‘일남일녀’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구약』(1911)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38년 판본은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 바꾸어 번역한다.

1.28. 창세기 1:28

(1930)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닐으샤되 생육하고 번성하야 짜에 츄만하고 짜를 정복하되 물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짜에 모든 기는 생물을 쥬관하라 하시다

(1938) 하나님이 그들의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게 닐아샤대 생육하고 번성하야 짜에 츄만하라 짜를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짜에 움족이는 모든 생물을 다사리라 하시니라

본 절에서 1938년 판본의 특징은 문장을 짧게 끊었다는 점이다. 1930년 판본이 ‘짜에 츄만하고 짜를 정복하되’로 되어 있는 것을 ‘짜에 츄만하라 짜를 정복하라’로 끊어서 번역하여 읽기 편하게 했다. 그러면서도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그들의게’⁴⁸⁾를 두 번씩이나 그대로 번역에 반영했다. 1930년 판본은 이 둘을 아예 생략했다.

그런데 1938년 판본은 ‘짜에 움족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번역하면서 통일성을 잃었다. 여기서는 ‘움족이는’이라고 번역하고 앞 1:26에서는 ‘짜에 기는 모든 것’이라고 하여 ‘기는’으로 똑같은 히브리어 ‘라마쓰(*למש)를 달리 번역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시다’(1930)와 ‘-시니라’의 어미변화가 보인다.

48) 우리말로는 ‘그들의게’(그들에게)로 똑같지만 히브리어로는 ‘오탐(אתם)’과 ‘라헴(להם)’으로 서로 다르다.

1.29. 창세기 1:29

(1930) 하나님이 골으샤디 온 디면의 씨 및는 최소와 씨 잇는 실과 나무를 너희게 식물노 주고

(1938) 하나님이 갈아샤대 내가 온 디면의 씨 및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및는 모든 나무를 너희게 주나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1930년 판본은 여기서도 간결한 번역이 돋보인다. 여기에 비해 1938년 판본은 원문의 모든 요소를 다 반영하다보니 문장이 길어졌다. ‘너희게 식물노 주고’(1930)를 ‘너희게 주나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1938)로 번역한다. 또한 1938년 판본의 ‘내가 … 주나니’는 히브리어 동사 ‘나타티(נָתַתִּי)’를 번역한 것인데 1930년 판본은 ‘내가’라는 주어를 집어넣지 않고 문맥을 통하여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다. 그런데 1938년 판본은 본 절 뿐만 아니라 다음절에서도 ‘내가’라는 말을 집어넣어 번역했는데 아마도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니면 히브리어 본문 상 ‘나타티(נָתַתִּי)’ 앞에 있는 ‘히네(הִנֵּה)’ 때문에 주어를 강조한 것은 아닐까?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1.30. 창세기 1:30

(1930) 또 싸의 모든 식물 곳 짐승과 공중의 새와 그는 곤충들의게 모든 푸른 풀을 식물노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1938) 또 싸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잇서 싸에 그는 모든 것의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노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본 절에 나오는 세 종류의 피조물은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곤충)이다. 따라서 1930년 판본의 ‘모든 식물’은 어디에서 온 표현인지 분명치 않다. 히브리어 본문에도 없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1938년 판본은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모든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여 번역했다. 따라서 이 경우는 1930년 판본의 오역을 바로 잡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여기에도 ‘-지라’(1930)와 ‘-니라’(1938)의 어미변화가 보인다.

1.31. 창세기 1:31

(1930)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선호지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재날이러라

(1938)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도왔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본 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심히 선흔지라’(1930)를 ‘보시기에 심히 도왔더라’(1938)로 바꾼 것이다. 1930년 판본은 히브리어 표현⁴⁹⁾을 있는 그대로 번역했다. 그런데 피터스 팀의 1938년 판본은 앞에 ‘보시기에’라는 말을 집어넣어 번역했다. 혹시 ‘보시기에’라는 말이 히브리어 ‘히네(הנה)’를 번역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 곳과 같은 문장 구조를 지니고 있는 창 6:12에서는 피터스 팀이 ‘하나님이 보신즉 싸이 패괴해엿스니’⁵⁰⁾라고 번역하여 ‘히네(הנה)’를 번역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개역』 1930년 판본(『구약전서』)과 1938년 판본(『성경 개역』)의 다른 점

여기서는 창세기 1장 번역문에서 번역이 달라진 점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았다. 지면의 한계상 여기서 세세히 다루기는 어려우나, 추후 『개역』 1930년 판본과 1938년 판본의 다른 점을 책 전체에 걸쳐 고찰한다고 할 때 이 분석은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 번역을 바꾼 경우

창 1:3 빛치 잇거늘 (1930) ⇨ 빛치 잇엇고 (1938)

창 1:4 하느님이 빛출 보시니 선흔지라 (1930)

⇨ 그 빛치 하나님의 보시기에 도왔더라 (1938)

창 1:4 빛과 어두움을 낯호샤 (1930) ⇨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난호샤 (1938)

창 1:5 빛을 낮이라 하시고 (1930) ⇨ 빛출 낮이라 칭하시고 (1938)

어두움을 밤이라 하시다 (1930) ⇨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1938)

창 1:7 그 우 아래 물을 (1930) ⇨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노 (1938)

낯호시니 (1930) ⇨ 난호이게 하시매 (1938)

창 1:8 하늘이라 하시다 (1930) ⇨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1938)

창 1:9 므른 흙 (1930) ⇨ 못 (1938)

창 1:10 바다라 하시고 (1930) ⇨ 바다라 칭하시니라 (1938)

창 1:10, 12, 18, 21, 25 하느님이 보시니 선흔지라 (1930) ⇨ 하나님의 보시

49) והנה טוב מאד

50) וירא אלהים את־הארץ והנה נשחתה

- 기에 도왔더라 (1938)
- 창 1:11 씨 잇는 과목 (1930) ⇨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1938)
- 창 1:14 빛들 (1930) ⇨ 광명 (1938)
- 궁창 (1930) ⇨ 하늘의 궁창 (1938)
- 쥬야를 논호고 (1930) ⇨ 쥬야를 난호게 하라 (1938)
- 창 1:15 하늘에서 (1930) ⇨ 하늘의 궁창에 잇서 (1938)
- 창 1:16 빛 (1930) ⇨ 광명 (1938)
- 큰자 (1930) ⇨ 큰 광명 (1938)
- 적은자 (1930) ⇨ 적은 광명 (1938)
- 창 1:17 빛최여 (1930) ⇨ 빛최게 하시며 (1938)
- 창 1:20 물에 싱물이 번성호며 (1930) ⇨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1938)
- 짜 우 공중에 (1930) ⇨ 짜 우 하늘의 궁창에는 (1938)
- 새가 늘게 흐리라 (1930) ⇨ 새가 날나 (1938)
- 창 1:21 큰 고기 (1930) ⇨ 큰 물고기 (1938)
- 물에서 번성호는 싱물 (1930)
- ⇨ 물에서 번성하야 움죽이는 모든 생물 (1938)
- 모든 논는 새 (1930) ⇨ 날개 잇는 모든 새 (1938)
- 창 1:22 바다 (1930) ⇨ 여러 바다 물 (1938)
- 창 1:24, 25 괴는 곤충 (1930) ⇨ 괴는 것 (1938)
- 들 짐싱 (1930) ⇨ 짜의 짐생 (1938)
- 창 1:26 우리의 형상대로 (1930) ⇨ 우리의 형상을 짜라 우리의 모양대로 (1938)
- 물의 고기 (1930) ⇨ 바다의 고기 (1938)
- 모든 괴는 곤충 (1930) ⇨ 괴는 모든 것 (1938)
- 쥬관하게 흐자 (1930) ⇨ 다사리게 하자 (1938)
- 창 1:27 자기 형상대로 (1930) ⇨ 자기 형상 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1938)
- 일남일녀 (1930) ⇨ 남자와 녀자 (1938)
- 창 1:29 씨 잇는 실과 나무 (1930) ⇨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1938)
- 너희게 식물노 주고 (1930)
- ⇨ 내가... 너희게 주나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1938)
- 창 1:30 짐싱 (1930) ⇨ 모든 짐생 (1938)
- 공중의 새 (1930) ⇨ 공중의 모든 새 (1938)
- 괴는 곤충들 (1930) ⇨ 생명이 잇서 짜에 괴는 모든 것 (1938)
- 창 1:31 심히 션흔지라 (1930) ⇨ 심히 도왔더라 (1938)

2.2. 문장의 종결형을 바꾼 경우

- 창 1:1 창조하시다 (1930) ⇨ 창조하시니라 (1938)
창 1:2 운행하시더라 (1930) ⇨ 운행하시니라 (1938)
창 1:3 빗치 잇스라 하시니 (1930) ⇨ 빗치 잇스라 하시매 (1938)
창 1:3 빗치 잇거늘 (1930) ⇨ 빗치 잇섯고 (1938)
창 1:5 첫재날이러라 (1930) ⇨ 첫재 날이니라 (1938)
창 1:7 난호시니 (1930) ⇨ 난호이게 하시매 (1938)
 그대로 된지라 (1930) ⇨ 그대로 되니라 (1938)
창 1:8 둘째날이러라 (1930) ⇨ 둘째 날이니라 (1938)
창 1:12 내거늘 (1930) ⇨ 내니 (1938)
창 1:15 하시니 (1930) ⇨ 하시고 (1938)
창 1:21 창조하시고 (1930) ⇨ 창조하시니 (1938)
창 1:22 충만하며 (1930) ⇨ 충만하라 (1938)
창 1:26 문드러 (1930) ⇨ 만들고 (1938)
창 1:28 충만하고 (1930) ⇨ 충만하라 (1938)
 싸를 정복하되 (1930) ⇨ 싸을 정복하라 (1938)

2.3. 철자법을 고친 경우

- 창 1:1, 3, 4, 6, 7, 8, 9, 11, 20, 24, 26, 28, 29, 31 하늘님 (1930) ⇨ 하나님 (1938)
창 1:2 혼돈하고 (1930) ⇨ 혼돈하고 (1939)
창 1:3, 11, 20, 24, 26 갈아샤대 (1930) ⇨ 갈아샤대 (1938)
창 1:4 난호샤 (1930) ⇨ 난호샤 (1938)
창 1:5 아춤 (1930) ⇨ 아참 (1938)
창 1:6 가운데 (1930) ⇨ 가운데 (1938)
 난호이게 하리라 하시고 (1930) ⇨ 난호이게 하리라 하시고 (1938)
창 1:7 궁창을 문드샤 (1930) ⇨ 궁창을 만드샤 (1938)
창 1:8, 15 하늘 (1930) ⇨ 하늘 (1938)
창 1:11, 12 씨 밋는 최소 (1930) ⇨ 씨 맺는 채소 (1938)
창 1:16 문드샤 (1930) ⇨ 만드샤 (1938)
창 1:22 생육하고 번성하야 (1930) ⇨ 생육하고 번성하야 (1938)
 충만하며 (1930) ⇨ 충만하라 (1938)
창 1:26 하자 하시고 (1930) ⇨ 하자 하시고 (1938)

2.4.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요소를 첨가한 경우

창 1:5, 8, 13, 19, 23, 31 … 날이러라 (1930) ⇨ 이는 … 날이니라 (1938)
창 1:14 징조가 되며 (1930) ⇨ 그 광명으로하여 징조와 (1938)
창 1:31 심히 선흔지라 (1930) ⇨ 보시기에 심히 도왔더라 (1938)

2.5.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요소를 뺀 경우

창 1:11 과목을 그 우에 내라 (1930) ⇨ 과목을 내라 (1938)

2.6. 작은 글자나 괄호로 처리한 경우

창 1:15, 24 그대로 된지라 (1930) ⇨ (그대로 되니라) (1938)
창 1:16 문드샤 (1930) ⇨ 만드시고 (1938)

2.7. 오역을 바로 잡은 경우

창 1:30 짜의 모든 식물 곳 짐승과 공중의 새와 기는 곤충들의게 (1930)
⇨ 짜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잇서 짜에 기는 모든
것의게는 (1938)

3. 나가는 말

위에서 분석한 창세기 1장의 경우 같은 『개역』이지만 피터스 팀의 1938년 판본(『성경 개역』)이 베어드 팀의 1930년 판본(『구약전서』)과 다른 점은 한 마디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⁵¹⁾에 있는 각 요소를 뺄 수 있는 한 다 반영

51) 크리스찬 긴스버그(Christian David Ginsburg)가 편집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초판 1894년, 2판 1908-1926년)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성서공회 도서관에 있는 초판의 제목은 이렇게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다. 다비드 긴스부르크 편, 『토라 네비임 우-케투빔』 (에쓰림 베-아르바야 씨프레이 하-코데쉬), 제1권: 창세기-열왕기 (런던, 1894). 이 책의 일반 주기에는 ‘Critical edition with variants, based on the Rabbinic Bible / ed. by Jacob ben Chayim -- Venice 1524-25’로 되어 있다. 곧 긴스버그의 히브리어 비평본은 제2랍비 성서에 근거한 비평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한성서공회 도서관에 있는 긴스버그의 히브리어 마소라 비

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특히 히브리어 ‘엘로힘’은 모두 ‘하나님’으로 번역하여 집어넣었다. 다음은 위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1938년 판본의 구체적인 특징이다.

(1)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반영한다(1:2, 7, 17 등). 특히 히브리어 ‘엘로힘’을 한글 문장에 모두 집어넣어 ‘하나님’으로 번역한다(1:2, 17, 25).

(2) 히브리어 동사 3인칭 기원형을 그대로 직역하여 ‘…하게 하라’체(1:6, 14)나 2인칭 명령형 ‘…하라’체(1:9, 11, 24)로 번역한다.

(3) 오역을 바로 잡기도 한다(1:30).

(4) 문장 종결형을 ‘-(시/이)니라’나 ‘-더라’⁵²⁾로 간결하게 통일시킨다(1:1 등). 이러한 문장 종결형의 변화를 통하여 이전의 번역에 비해서 객관성, 묘사성, 사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한다(1:1 등).

(5)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요소를 생략하거나(1:11)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요소를 집어넣기도 한다(1:5, 13, 31).

(6) 당시 철자법을 따라 표기한다(1:1 등). 아래 아(·)를 모두 없앤 것을 말한다.⁵³⁾

(7) 작은 글자와 괄호를 사용한다(1:15, 16, 24).

(8) 문장을 길게 늘이거나(1:11-12) 짧게 나눈다(1:14, 28).

평본 제2판의 서지사항은 이렇다. C. D. Ginsburg, ed., *Torah, Nevi'im, Ketuvim*, New Critical edition, vol. 1: Pentateuch, vol. 2: The Earlier Prophets, vol. 3: The Later Prophets, vol. 4: The Writings (London: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08-1926).

옥성득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밀러 서신』 제3권, 357(번역 356쪽)에 당시 영국 성서공회 조선 지부(BFBC Korea Agency)의 총무인 휴 밀러가 영국성서공회의 킬고어 박사(Dr. Kilgour)에게 보낸 1922년 9월 1일자 편지에 ‘긴스버그의 히브리어 구약’(Ginsburg’s Hebrew Old Testament) 3부를 보내 달라는 내용이 써 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피터스 팀도 긴스버그가 편집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읽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그러나 두 권으로 나뉘어 있는 초판을 읽었는지 네 권으로 나뉘어 있는 제2판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II, 146과 박동현, “한국 교회에서 개역 성경이 갖는 의의 - 개역 성경의 재발견 -”, 서울: 한글 성경 번역과 보급의 역사,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2015. 11. 24., 14도 참조하라.

52) 『구약전서』(1930)도 창 1:2에서 ‘-더라’라는 표현을 한 번 사용한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종결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 개역』(1938)은 적어도 창세기 1장-5장에서 ‘-더라’를 계속해서 사용한다. 특히 창세기 2장 이하에서는 ‘-더라’가 ‘-니라’보다 더 자주 등장한다.

53) 옥성득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밀러 서신』 제3권, 686-687을 보라. 1934년 9월 20일 성서회관에서 열린 한국성서위원회 회의록에 ‘아래 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기록한다. 아마도 1933년 확정된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에 맞추어 ‘아래 아’를 없애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이 통일안에는 ‘아래 아’를 폐기하는 안이 들어있다. Daum 백과, 한글맞춤법통일안,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4h2809a> (2018. 7. 17.)

알렉산더 피터스는 그의 글 “구약 개정에 대한 노트”⁵⁴⁾에서 한글 『개역』 개정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셋을 들었다. 우리말의 수동태 문제 그리고 히브리어 동사의 3인칭 기원형과 현재 가정법 번역 문제이다. 위에서 분석한 창세기 1장의 경우는 히브리어 동사의 3인칭 기원형 번역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히브리어 동사 3인칭 기원형을 1:6⁵⁵⁾과 1:14⁵⁶⁾에서는 ‘…하게 하다’체로 번역한 반면 1:9⁵⁷⁾, 11⁵⁸⁾, 24⁵⁹⁾에서는 2인칭 명령형으로 번역하여 일관성을 잃기도 했다.

피터스 팀의 1938년 판본 『성경 개역』은 히브리어 본문의 각 요소를 번역문에 다 반영하려고 노력하다 보니⁶⁰⁾ 어색한 번역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사의 증생’(1:24, 25),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1:11),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1:29) 등이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각 요소를 다 반영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번역어를 만들기도 했다. 1:21의 ‘물에서 번성하여 움죽이는 모든 생물’이나 ‘날개 잇는 모든 새’ 등이다. 1:26의 경우 1930년 판본이 ‘우리의 형상대로’라고만 번역한 것을 1938년 판본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로 히브리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신학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잘 살려낸 것은 1938년 판본의 공헌이다.

사실 베어드 팀의 개정 원칙⁶¹⁾과 피터스 팀의 개정 원칙⁶²⁾은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한 ‘축자역’(逐字譯)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의 경우 피터스 팀은 베어드 팀보다 번역문에 원문의 요소를 문자적으로 다 반영하려고 한 흔적이 더 많다. 또한 피터스 팀의

54) Alexander A.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78-80.

55) ‘궁창이 잇서 물과 물노 난호이게 하리라’

56) ‘광명이 잇서 주야를 난호게 하라 쏘 그 광명으로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년한이 일우라’

57) ‘턴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히고 못이 드러나라’

58) ‘사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59) ‘사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육축과 기는 것과 사의 증생을 종류대로 내라’

60) 『성경 개역』(1938)과 『성경전서』(1911)의 문체를 비교한 글로 전무용, “『성경전서』와 『성경개역』의 한국어 문장 비교 - 요한복음 1장-10장의 어순을 중심으로”, 『韓南語文學』 33 (2009), 155-177을 보라. 전무용 박사는 『성경 개역』(1938)이 원문의 모든 요소를 다 반영하다보니 『성경전서』(1911)보다 읽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성경 개역』(1938)은 『구약전서』(1930)와 비교해 보아도 읽기가 약간 더 어렵다.

61)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II, 145-146.

62) 피터스는 1940년에 쓴 그의 글 “구약 개정에 대한 노트”에서 번역 원칙을 밝히지 않았지만 “... 예언서와 시편과 잠언에 나오는 장엄한 문체를 어떻게 한국어로 옮기느냐 하는 것이었다. 문자적(文字的)으로 옮기되 말이 되도록 될 수 있는 한 시적(詩的)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번역 원칙도 ‘축자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Alexander A. Pieters,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79.

1938년 판본에는 몇몇 번역어의 변화⁶³⁾도 눈에 띈다. 아마도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이해나 용어 선호도가 달라 바꾼 듯하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차이점은 문장의 어미변화이다.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1:2 등에서 ‘-러라’(1930년 판본)에서 ‘-니라’(1938년 판본)로 바뀐 것이다. 곧 주관적인 설명 형식에서 상대적으로 묘사적인 설명 형식으로 문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20년대를 전후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라’ 종결형 문장에서 ‘-다’ 종결형 문장으로 문체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⁶⁴⁾ 그런데 위에서 본대로 성경을 개정하면서 사실 동일한 ‘-라’ 종결형을 쓰면서도 그 안의 문체 표현에서 다분히 객관적 묘사적 표현을 사용한 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피터스 팀의 1938년 판본 『성경 개역』은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요소를 그대로 번역에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문장 종결형이나 표현 및 용어를 바꾸어 개정했다. 『성경 개역』(1938)의 이러한 번역 특징은 이후에 개정되어 나온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번역 특징은 피터스 팀의 1938년 『성경 개역』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Keywords)

알렉산더 피터스, 한글 개역, 개정작업, 1930년 판본, 1938년 판본, 창세기 1장.

Alexander A. Pieters, Korean Revised Version, Revision work, 1930 edition, 1938 edition, Genesis chapter 1.

(투고 일자: 2018년 7월 9일, 심사 일자: 2018년 8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8년 10월 25일)

63) 창 1:9 므른 흙(1930) ⇨ 못(1938)

창 1:14 빛들(1930) ⇨ 광명(1930)

창 1:21 고기(1930) ⇨ 물고기(1938)

창 1:24, 1:25 괴는 곤충(1930) ⇨ 괴는 것(1938)

64) 전무용, “『新約全書 국한문』(1906)의 본문 계보 관계 연구”, 『성경원문연구』 10(2002), 95. 전무용 박사는 이 논문에서 「신학세계」에 실린 글의 경우, 1923년 11월호에 처음으로 ‘-다’ 종결형 문장이 나타나고, 1928년에 이르러 모든 글이 ‘-다’ 종결형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관주 구약전서』, 관주 성경전서 1, 서울: 대한성서공회, 1950.
- 『구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30. (개역 1930년 판본)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새번역)
- 『성경 개역』, 경성: 조선성서공회, 1938. (2015년 대한성서공회 영인본) (개역 1938년 판본)
- 『성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30.
- 『新譯 新舊約全書』(影印本), 奇一博士 譯, 서울: 한국이공학사, 1986; 원출판년 1925. (게일-이원모역)
- 『창세기』(기역), 성서 개역자회 역, 1925.
- 다비드 긴스부르그 편, 『토라 네비임 우-케투빔』 (에쓰림 베-아르바아 씨프레이 하-코데쉬), 제1권: 창세기-열왕기, 런던, 1894. (히브리어)
- Das Alte Testament Hebräisch-Deutsch: Biblia Hebraica mit deutscher Übersetzung*,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74. (BHK, 루터역)
- Ginsburg, C. D. ed., *Torah, Nevi'im, Ketuvim*, New Critical edition, vol. 1: Pentateuch, vol. 2: The Earlier Prophets, vol. 3: The Latter Prophets, vol. 4: The Writings, London: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08-1926.
- Die Bibel in heutigem Deutsch - Die Gute Nachricht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2. (DGN)
- JPS Hebrew-English TANAKH: The Traditional Hebrew Text and the New JPS Translation*, 2nd ed., Philadelphia, P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9. (TNK)
- La Bible: Ancien et Nouveau Testament, Traduite de l'hébreu et du grec en français courant*, Nouvelle édition révisée 1997, Alliance Biblique Universelle, Villiers-le-Bel: Société biblique française, 1997. (BFC)
-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in the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4; 원출판년 1611. (KJV)
- The Holy Scriptures*, The English Text revised and edited by Harold Fisch, Jerusalem: Koren Publishers, 1992. (Koren)
-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2015년 11월 24일(화) 정동제일교회, 서울: (재)대한성서공회, 2015.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閔泳珍, 『國譯聖書研究』,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박동현, “한국 교회에서 개역 성경이 갖는 의의 – 개역 성경의 재발견 –”, 서울: 한글 성경 번역과 보급의 역사,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2015. 11. 24., 7-55.
- 옥성득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밀러 서신』 제3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로스 서신과 루미스 서신』 제1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켄뮤어 서신』 제2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6.
- 이환진, “알렉산더 피터스의 『시편 활요』 번역 평가”, 김영일 외,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김이곤교수퇴임기념논문집, 서울: 한들, 2006, 413-453.
- 이환진, “알렉산더 피터스의 한글 개역 구약 개정 작업 — “구약 개정에 대한 노트”(1940년)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22 (2008. 4), 48-72.
- 이환진, “한문성경 『대표본』(代表本, 1854)의 번역 특징 -전도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0 (2012. 04), 25-44.
- 이환진, “탁사 최병헌 목사의 선한문 창세기 개역 (1925) 번역 평가: 창세기 1장의 경우”, 「신학과 세계」 82 (2015.03), 6-71.
- 전무용,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 계보 관계 연구”, 「성경원문연구」 10 (2002.02), 90-103.
- 전무용, “『성경전서』와 『성경개역』의 한국어 문장 비교 - 요한복음 1장-10장의 어순을 중심으로”, 「韓南語文學」 33 (2009), 155-177.
- 전무용, 조지운, “한글 성서의 번역”,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서울: (재)대한성서공회, 2015, 46-64.
- 韓國教會史文獻研究所 편, 『韓國聖經大全集 19』(구약전서[상][1911]), 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所, 2002. (구역)
- 韓國教會史文獻研究所 편, 『韓國聖經大全集 25』(종도행전[1922], 선한문 창세기[1925], 소년성경[1925]), 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所, 2002.
- 韓國教會史文獻研究所 편, 『韓國聖經大全集 28』(선한문 관주 성경전서[상][1926]), 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所, 2002.
- 韓國教會史文獻研究所 편, 『韓國聖經大全集 31』(관주 구약전서[상][1930]), 서울: 韓國教會史文獻研究所, 2002 (개역 1930년 판본).
- 한국어문학회 편, 『고전소설선』, 서울: 형설출판사, 1984.
- Alter, Robert, *Genesis: Translation and Commentary*, New York, London: W. W. Norton & Company, 1996. (Alter)
- Fox, Everett, *In the Beginning: A New English Rendition of the Book of Genesis*, New York: Schocken Books, 1983. (Fox)

- Koehler, Ludwig and Baumgartner, Walt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Study Edition, 2 vols, M. E. J. Richardson, trans., Leiden, Boston, Köln: Brill, 2001. (*HALOT*)
- Pieters, Alexander A., “Notes on Old Testament Revision”, *The Korea Mission Field* 36/5 (May 1940), 78-80.
- Pieters, Alexander A., “First Translations”, *The Korea Mission Field* 34/5 (May 1938), 90-93.
- Speiser, E. A., *Genesis*,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1964. (Speiser)
- Von Rad, Gerhard, *Genesis: A Commentary*, Revised ed.,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2. (von Rad)
- Daum 백과, 한글맞춤법통일안,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24h2809a> (2018. 7. 17.)
- 국립국어원, “의 10”에 대한 설명 2번,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8. 9. 5.)

<Abstract>

**Alexander A. Pieters's Revision
for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38) Old Testament:
A Comparative Study of Genesis Chapter 1 of the Korean Old
Testament (1930) and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38)**

Hwan Jin Yi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Alexander A. Pieters began his mission work in Korea as a colporteur in 1895. He also translated and published “시편촬요”(Shi-Pyeon-Chal-Yo) in 1898, which is a selection of Psalms translated into Korean. This is the first Old Testament translation in Korean, and has also heavily influenced later translations of the book of Psalms.

The Korean Bible Society decided to revise the Korean Old Version in 1911 because the Old Version was translated by a few translators who had no knowledge of original biblical languages. The revision for the Korean Revised Version progressed in three stages: (1) J. S. Gale's period (1911-1925), (2) W. M. Baird's period (1926-1931), and (3) A. A. Pieters's period (1931-1937). As such, Pieters served as the main reviser at the final stage of the revision work because of his deep knowledge of Hebrew. He worked with Won Mo Yi (이원모) and W. D. Reynolds.

Some characteristics of the revision by Pieters's team for the KRV OT as observed in chapter one of Genesis are as follows:

(1) Pieters's team tried to reflect every aspect of the Hebrew Bible word by word. Especially every occurrence of the Hebrew *Elohim* in Genesis translated as 하나님 (Hananim) in the revision (1:2, 17, 25).

(2) Hebrew verbs in *Yiqtol* were translated as the third person imperative *cause to do* (“...하게 하라”) (1:6, 14) or as the second person imperative (“...하라”) in Korean (1:9, 11, 24).

(3) Mistranslation of the earlier translation is revised correctly (1:30).

(4) Sentences in revision uniformly end with -니라 (-nira) or -더라(-deora) (1:1-3 etc.). Compared with the earlier translation, these endings tend to

reinforce objectivity or something descriptive.

(5) Some elements of the Hebrew Bible are omitted (1:11), while some elements outside of the Hebrew Bible are added (1:5, 13, 31).

(6) Ahrae ah vowel (the dot under the consonant) is removed, following the orthography of that time (1:1 etc.).

(7) Small letters and parentheses are used (1:15, 16, 24).

(8) Sentences get longer (1:11-12) or shorter (1:14, 28).